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hr/>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СА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18년 11월 30일(금) (음력 10월 23일) Пятница 30 ноября 2018 г. № 46(11681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지난 24일(토) сахалин한민문화센터에서 어머니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3면)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сахалин 대표단, 모스크바 <극동 박람회> 참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모스크바 트웨르스카야 광장에서 <극동 박람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모스크바에서 극동지역의 날들>연방기획프로그램 중 하나로 러시아 대통령 극동전권대표, 극동개발부, 모스크바주 정부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11월 초반에는 기획의 일환으로 '극동 익스프레스' 지하철 순환노선이 생겨 내부에는 극동지역의 자연, 경제, 음식을 소개한다. 트웨르스카야 광장에는 먼 데서 공수해온 식품이 제공되어 식식 코너도 마련하고 сахалин 대표들은 '차의 집' 부스에서 сахалин의 제과와 다양한 먹거리, сахалин의 열매들로 만든 시럽을 소개하고 сахалин 한인들의 왕만두(뽕세)도 소개된다. '상품 갤러리'부스에서는 сахалин 북방소수민족들의 전통 공예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12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는 <엑스포센터>에서 '모스크바 극동의 날들'이 계속된다. 이 기간에는 청년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극동지역의 선도사업 부문 박람회가 진행되며 극동지역 이주자들에게 주는 지원정책, 혜택들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다음주, сахалин에서 <영토. сахалин>현대 예술축제학교 개최

12월 3일(월) - 9일(일)까지 сахалин주에서 <영토. сахалин>현대예술축제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сахалин 축제는 2019년과 2020년에 극동지역에서 연극예술개발프로그램을 열고 개막식에서는 러시아 인민배우 엠게니 미로노브가 진행한다. 이 축제는 연극, 무용, 음악, 미술을 포함하고 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에서 러시아의 선도문화기관들(국립민속극장, 명인 드미트리 브루스니킨 극장, 모스크바 <트릭스테르>극장, 예카체린부르그 <향토 춤>극장, 크라스노야르스크 청소년극장 등의 연극과 '젤리콘오페라'극장 솔리스트들의 공연, 모스크바 현대미술관 전시회 등)의 기획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영토. сахалин>은 '영토'국제현대예술축제학교와 체홉 сахалин국제연극센터와 모스크바 현대예술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에서 사회적 주도 포럼 개최

11월 30일(금) 오후 2시에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 <스틀리차>비즈니스센터 내 콩그레스홀에서 сахалин 사회적 주도 포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сахалин주 사회원과 сахалин주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사에 비영리 단체, 발기그룹들과 시민활동가들이 그들에게 있어 사회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장이 마련된다.

포럼 일정에는 사회적 봉사 제공자의 문제에 대한 패널 토론, 비영리단체 활동과 과제에 따른 활동교실 등이 있다.

조직자들은 이 대회에 비영리단체 활동가, 사업가, 발기 그룹과 시민활동가들을 초대한다.

сахалин 주두마, 예산 관련 연방법안 반대 표명

지난 29일(목) сахалин주두마 의원 총회의에서 연방에서 내려온 예산 관련 개정법안 입안과 예산 간 실행 목적에 대한 법안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우선 주두마 예산 및 세금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었는데 개정법안에는 한 지역의 예산 일부가 다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흑자 예산이 있는 지역이 이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주는 보조금 절차와 목표를 명시하는 협약을 두 지사가 체결하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сахалин주 예산에 석유가스 기획 회사들로부터 추가액이 들어올 거란 소식이 알려졌다. сахалин은 흑자 예산이 있는 러시아 일부 지역 중 하나이다. 그래서 сахалин의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해보인다. 더군다나 сахалин주지사 권한 대행도 이미 2개월 부재한 상황에서 сахалин주의 예산액이 강탈되는 것으로 보인다.

сахалин주민들은 주의 자금이 쉽게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이 반대하고 있으며 сахалин주두마의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개정법안 입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국가두마 회의에서는 이 개정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흑자 예산 지역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сахалин주두마에서는 개정법안이 국가두마에서 제1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지역법으로 두 지역 간 협정 서명에 대한 권리를 지역 입법기관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서안은 국가두마 외에 연방회의(국회 상원) сахалин 대표들에게도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сахалин, <아시아 아이들>동계스포츠 게임 성화 봉송 계획

첫 <아시아 아이들>동계스포츠대회 성화 봉송은 12월 22일 야쿠츠크시의 공원 <렌스키에 스톨비>에서 성화가 점화된다. 야쿠츠크에 먼저 봉송한 성화는 12월 31일쯤 сахалин 중심지에 캡슐로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сахалин과 쿠릴 지역들에서 성화 봉송은 새해 명절 후 쿠릴 섬들에서 시작해 сахалин의 가장 북부도시 오하까지 모든 구역을 지나며 봉송하게 된다. 각 구역에서 이를 위한 실무그룹을 결성하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성화 봉송 코스와 봉송자들을 선정했다.

성화는 сахалин 본토의 10개 도시를 지나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는 2월 9일 <아시아 아이들>국제대회 개막일에 도착한다.

<아시아 아이들>대회는 2019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개최된다. 선수들은 8개 종목(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스키 점프, 휘겨,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쇼트 트랙)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현재 이 대회에 중국,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 17개국 참가신청을 했고 러시아의 모스크바, 타타르스탄공화국,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 사하(야쿠치야)공화국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동연방구에서는 선수 124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сахалин에는 이미 <아시아 아이들>의 깃발이 도착했고 이 깃발은 현재 <크리스탈>빙상장에 보관돼 있으며 이곳에서 누구나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대회 때는 일 년간 해외 실습, 행사 준비와 교육에 참가해온 약 1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게 된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сахалин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сахалин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유지 및 발전에 노력 사할린국립대 임 엘비라 교수의 활동



올해는 사할린국립대 임 엘비라 하모코브나 한국어 교수는 많이 바빠졌다. 연초부터 그는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으로 임명돼 올해 9월에는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의 추천으로 본 협회 부회장으로 승인되었다.

임 교수와 만났을 때 그는 얼마 전에 다녀왔던 한국학 국제 학술회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인나 코르네예와 사할린국립대 한국어 교수와 함께 참가한 대회는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추진단(단장 이종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였다. 이번 비엔날레는 '21세기의 한국학: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한국학과 관련해 22개국 100여 명의 전문 학자들이 참가하여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사할린 교수들에게는 이 대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임 엘비라 교수는 이 한국학 대회의 장점은 참가자 모두가 한국어로만 발표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임 엘비라 교수는 한국어교육분과에서 <사할린과 한국: 문화 및 교육을 통해 상호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주제로 발표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언어·번역, 문화·역사, 철학, 한국어 교육, 문화·사회문화 등을 키워드로 한국학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을 생산해냈다고 전했다.

또 일반 학자들이 참가하는

분과 외에도 대학원생들을 위한 특별 세션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원생들(석사, 박사 학위)의 발표문을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학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임 엘비라 교수는 한국학 미래 전문가들의 연구영역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학술회 의미가 컸다고 했다.

4박 5일간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 중에 전통문화 체험행사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이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지인 전주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틀간 풍남문과 전통성당, 경기전, 향교를 비롯한 전주 한옥마을 탐방과 국립무형문화유산원, 전주박물관 청자 특별전 관람, 금산사 템플

스테이 등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임 교수는 한국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한국학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비엔날레에서 돌아온 임 엘비가 한국어 교수는 앞으로의 사할린국립대 한국학 교육계획에 이번 대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 엘비라 교수와 인터뷰는 그의 학장실에서 진행되었다. 얘기하는 도중에 대학 교수, 직원이 사인 필요한 서류 들고 또는 급히 검토해야 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계속 찾았다.

그가 학장으로 운영하는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에서는 현재 5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약 20개 전공을 한다.

사실 임 엘비라 교수는 학장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직위를 맡아달라할 때 처음엔 거절할 생각이었으나 학장으로 사할린국립대 교수가 아닌 외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승락을 했다고 한다.

"한국어와 한국학이 대학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임 엘비라 교수가 의지를 밝혔다. 사실 현재 사할린국립대가 운영이 많이 어려워지고 여러 문제가 많다고 한다.

그중 하나는 장학 과목 쿼터이다. 올해 사할린국립대 한국어학과에 무료석을 하나도 배정받지 못했다. 올해 이 전공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에 대한 국가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극동연방대학교에서는 한국어와 한국학 전공 신청자는 대학에서 계획하는 것보다 2배 더 지원하겠다는 모스크바의 결정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학비를 내고 한국어를 전공하려고 하는 청년 7명이 있었는데 10명 이하로 받지 말라는 규정에 의해 한국어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금년에 한국어반을 모집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 엘비라 교수는 많이 아쉬워 하고 이 방면에서 노력해보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학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어과 교수임을 잊지 않고 있다. 주로 그는 한국학과 관련한 문화, 지리학, 상호문화 등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의 부장으로 주 월, 수 한국어 초급(2), 중급반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가 거의 3년 사할린주한인협회와 함께 하는 한국어, 한민족문화 관련된 기획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박순옥 주한

인협회 회장이 임 엘비라 교수 본회 부회장을 맡달라는 부탁에 응했다고 한다.

어차피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고, 잘 아는 일이니 돕자는 마음에서 해보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저의 전문과 경험이 유용하겠다는 판단에 모든 방면은 아니지만 한국어 교육과 한민족 문화 관련 사업은 담당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임 엘비라 부회장이 설명했다.

임 엘비라 교수는 작년부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8기 러시아 지역 담당관도 맡고 있다. 담당관으로서 올해 사할린국립대에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조직한 바 있다. 물론 해마다 진행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도 참가하기도 한다.

한지공예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임 엘비라 교수는 이와 관련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활동교실도 열고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진다.

한편 한국어 교수로서, 학장으로서, 주한인협회 부회장으로서, 러시아지역 한인여성 담당관으로서 많이 바쁘지만 그가 하는 활동은 오직 사할린에서 한국어와 한민족문화 유지 및 발전, 러한 청소년 문화 등 교류를 위한 것이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올해의 여성>선발대회 우승자에게 시상

11월 2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올해의 여성>선발대회 우승자들에게 시상했다. 시상식은 벌써 11번째로 하여 '어머니의 날'을 앞두고 진행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여러 분야의 생활 속에서 여성들의 성공을 기리고 있다고 했다. 우승자는 6개 부문에서 선정되었다. <사회활동의 지도자>, <일하는 여성>, <자애로운 간호사>, <자녀양육에 헌신>, <문화와 정신>, <가정의 수호자> 부문들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활동적이고, 주도적인 동시에 감동을 주며,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축하한다."라고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이 설명하며 우승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회활동의 지도자>부문에는 <전국 장애인협회>누가위에 지부장인 김정순, <일하는 여성>부문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4중학교의 이리나 쿠카노와 교장, <자애로운 간호사>부문에는 주병원 산부인과의 타치야나 올라노와 간호사, <자녀양육에 헌신>부문에는 제32학교 초등학부 교사인 리디야 이와노와, <문화와 정신>부문에는 <메즈타(희망)>아동무용예술센터의 안무가인 이리나 리, <가정의 수호자>부문에는 제30 중학교 보충교육 교사인 웨라 알루예와 교사가 수상했다. 웨라 교사는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9명의 손주를 두고 현재는 중손주를 꿈꾸고 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градили победительниц конкурса «Женщина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3 ноября наградили победительниц конкурса «Женщина года». Церемония проводилась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матери уже в 11 раз.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мероприятие отмечает успехи женщин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жизни. Победители определяются в шести номинациях: «Лидер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Деловая женщина», «Сестра милосердия», «Сердце отдаю детям», «Культура и духовность» и «Хранительница семейного очаг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лавится активными, инициатив-

ными и вместе с тем трогательными, одухотворенными и прекрасными женщинами,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цам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in. Он же вручил дипломы победительницам.

Лидеро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ыбрали Кин Ден Сун, председателя Луг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нвалидов». Деловая женщина – Ирина Куканов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4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естрой милосердия признали Татьяну Ульянову, акушерку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В номинации «Сердце отдаю детям» победила Лидия Иванова, учитель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школы № 32, а в номинации «Культура и духовность» - Инна Ли, балетмейстер детского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Мечта».

Веру Алуеву, педагог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школы № 30, назвали хранительницей домашнего очага. Женщина воспитала троих детей, девять внуков и теперь мечтает о правнуках.

사할린, 연금자 체육대회 개최

네벨스크에서 사할린 연금자들이 4개 스포츠 종목에서 경기를 치렀다. 그중 다트, 탁구, 체스경기에서 우수성을 드러내면서 '노동과 방어' 표준 경기도 치렀다. 체육대회는 <노년기> 지역 차원의 기획으로 개최되었다. 종목별 경기에 4팀 (2팀은 유즈노사할린스크팀, 코르사코프 구역과 네벨스크 구역에서 각각 1팀)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경기 참가자들의 최연소 연령은 남성이 60세, 여성은 55세였다. 팀별 경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팀이 우수상을 차지해 주최 측은 특별컵을 수여했다. 2위는 코르사코프팀, 3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또 다른 팀, 4위는 네벨스크팀이 차지했다. 사할린 의료예방검진센터의 의사들은 기회를 이용해 중년에 신체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고 참가자들에게 당뇨병 발생 징후를 검사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방식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는 퀴즈 풀기를 열어 답을 맞힌 사람들에게는 상품으로 식품을 선물했다.

<노년기>기획의 목적은 체육을 권장하고, 체육으로 체계적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노년기를 위한 건강한 생활방식을 관리해가도록 하는 데 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спартакиада среди пенсионеров

В Невельске сахалинские пенсионер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четырех видах спорта. Они выявляли лучших в игре в дартс,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шахматах и сдавали

нормативы ГТО. Спартакиаду организ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Как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участвовали четыре команды: дв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одной из Корсаковского и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ов. Минимальный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тоже установили: 60 лет для мужчин, 55 лет для женщин.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лучшей стала одна из сборны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м организаторы вручили специальный кубок. Вторые – пенсионеры из Корсакова. Третье место у другой команд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четвертое у участников из Невельска.

Врачи 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медпрофилактики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случаем и провели лекцию о значении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в пожилом возрасте и протестировали участников на предрасположенность 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сахарного диабета. В завершении устроили викторину на знание принципов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За правильные ответы пенсионеры получали вкусные подарки.

Цель проек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 внедрение физкультуры,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система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и ведения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для пенсионеров.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만두 빨리 먹기>대회 우승자에게 만두 5 킬로를 부상으로

12월 15일 <만두의 날>축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개최된다. 전통적으로 프로그램에는 푸드코트, 군대 음식, 시식회, 아동과 성인들을 위한 오락, 그리고 만두 빨리 먹기대회인 <만두를 천천히>가 진행된다.

<만두를 천천히>경연대회에 참가하려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참가자 인원을 총 10명(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희망자는 조속히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대회에서 주어진 과제를 가장 빨리 수행한 참가자에게는 5킬로의 만두를 부상으로 수여한다.

신청은 12월 7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소비자장 및 식품자원부 접수처 (주소: 포페다 거리, 62아번지)나, 메일a.klimenko@yuzhno-sakh.ru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300-743 (추가 1, 2, 3) 전화로 문의.

축제에는 만두 생산자들도 초대한다. 시민들과 도시 방문객들은 이들의 만두를 시식한 후 가장 맛있는 만두에 투표방식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8면에 계속)

어머니를 찬양하여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4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여성회의 주최로 러시아 어머니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다. 여성단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1세 할머니들을 위주로 초대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여성회 회원들이 정성껏 차린 밥상에 앉으신 어르신들은 먼저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 명절 공연을 감상했다. 이날 행사 사회는 사할린주한인여성회 김웨철 회장이 직접 진행했다.



우선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아이가 하는 첫 말은 엄마란 말이라고 강조하고 어머니들이 베푸는 사랑에 감사하며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도 역시 뒀니뒀니 해도 건강하게 아주 오래 오랫동안 사시기를 바라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후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야마다 학회, 김종길, 강팔용 아마추어 가수들이 어머님들에게 다양한 노래를 바쳤다. 이들은 정성을 담아 '어머님'이란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모곡' 등 여러 곡을 들려주었다. 특히 김종길 씨가 '아빠의 청춘'을 부를 때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이 노래에 맞춘 몸짓을 보여주었다. 김웨철 회장도 역시 대단한 노래 실력이었다.

또한 중년·노년의 여성들로 구성된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은 이날 화려한 부채춤 무대를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영자 씨는 '어머니'란 시를 낭독했고 이채인 씨는 자신이 직접 쓴 '어머니의 슬픈 노래'(본지 2018년 8월 10일호 게재)를 낭독해 진정어린 시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공식 공연이 끝나자 강팔용 동포가수의 무대 노래에 춤판이 벌어졌다. 이날 어머니들에게 축하하는 의미에서 허진원 파견 한국 작가,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김병화 동포 2세 등이 노래를 멋지게 불러주기도 했다.

이날 할머니들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춤도 즐겁게 추셨다. 그리고 선물로 주한인협회에서 배포하는 2019년 달력도 받았다.

한편 이 행사에 양 세르게이, 장태호 등 한인 시인·작가들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 팀, 한국 천하장사씨름대축제 참가

지난 11월20일(화)부터 26일(일)까지 7일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18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사할린팀(단장 사할린주 씨름협회 춘(정) 알렉세이)이 출전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안동시체육회와 안동시씨름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여 천하장사 57개 팀 399명, 남·여 체급별장사 43개 팀 217명, 대학단체 135명, 세계특별장사 6개 팀 42명 등, 선수와 임원 8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사실상 확정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에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정신문화의 중심도시 안동에서 개최하게 돼 의미가 매우 깊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몽골, 스페인, 러시아, 뉴질랜드, 중국 등 5개국의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참가해 씨름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8명으로 구성된 사할린 팀이 출전했다. 사할린 선수들이 이런 씨름대축제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춘 알렉세이 회장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잊을 수 없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다. "많이 보고 배우고 여러 분들과 만나고 사할린 씨름의 장래가 보인다."고 춘 회장이 덧붙였다.

(본사기자) (사진: 사할린주씨름협회 제공)

사할린의 봄

[미술산책]

사할린은 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한국 면적의 90%인 이 섬의 인구는 약 55만명이고 우리 동포 3만여명이 살고 있다. 1905년부터 40년간 사할린을 점령했던 일본은 이곳 탄광과 벌목장에 조선인을 끌고 가 노역을 시켰다. 그렇게 끌려간 한민족은 일제가 떠난 뒤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척박한 땅을 개간하며 농사를 지었다. 강인한 생존력으로 황무지를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들었다. 사할린의 주도(州都)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풍경을 담담한 필치로 그린 화가는 조성용(1960~)이다. 조성용의 부친은 경북 군위 출신으로 오사카에 살다가 열아홉이던 1940년 사할린에 갔다. 일본 패망 후 귀국할 수 없었던 그는 동토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가정을 꾸렸다. 그의 아들 조성용은 그림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 미대 졸업 후 사할린을 대표하는 화가로 자랐다. 사할린예술디자인대학 교수인 아들은 안톤 체호프를 기리는 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성용 '유즈노사할린스크, 4월' 캔버스에 유채, 2013.

조성용은 자신이 낳고 자란 도시풍경과 사할린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다. 특히 개발 여파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외곽 풍경을 즐겨 화폭에 담는다. 낡은 판자를 얹은 창고 뒤로 크고 작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도시는 나지막한 산에 안기듯 둘러싸여 있다. 4월, 봄이 왔지만 산은 아직 겨울이고, 공기도 싸늘하다. 하지만 붉은 지붕을 인 집들에선 따뜻한 희망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부친의 가슴 아픈 이주사(史),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고즈넉한 도시풍경에 차분히 녹여낸 조성용의 그림은 경기도미술관이 기획한 '코리아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에 출품됐다.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거주하는 동포작가 25명이 초대된 전시에는 비극적인 이주사를 딛고, 겨레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작품 110점이 내걸렸다.

이영란 미술칼럼니스트 (출처) - 국민일보

[인터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헌법에 '재외동포' 명시,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대한민국 재외동포기념관 건립 등 세 가지 중점 추진

재외동포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9대)에 취임한 한우성 이사장이 지난 10월 23일로 임기 3년 중 1년을 일했다.



▲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첫 재외동포출신 이사장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잘 해내야 한다는 책임도 무겁다고 말했다.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10월 3일~5일, 서울 잠실), '제17차 세계한상대회'(10월 23일~25일, 인천 송도) 등 재단의 대표적인 두 가지 큰 행사를 마치고, 새해 사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한 이사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재단이 구상 중인 사업 계획을 들어봤다.

Q. 이사장님, 먼저 취임 1년 축하드립니다. 첫 재외동포 출신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뒤 바로 다음날 창원에서 열린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서 취임인사 겸 환영인사를 하셨던 게 잊고계 같은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성 이사장(이하 한) : 첫 재외동포출신 이사장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잘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또 제가 취임한 시기가 재단의 제주 이전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시기였거든요. 설립 21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에 이사장을 맡게 돼서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지난 10월 한인회장대회와 한상대회 등 두 번의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요.

한우성 이사장(이하 한) : 전 세계 한인회장 500명이 서울을 찾아 각 지역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5,000명의 한상들이 송도에 모인 '제17차 세계한상대회' 모두 역대 대회 중에 가장 잘 준비된 대회였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잘 치러졌습니다. 일단 회장님을 찾아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행사를 잘 준비한 재단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물론 개선할 점도 많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프로그램도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시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내년 대회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두 대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두 대회를 모두 직접 찾은 건 올해가 처음이지요?

한우성 이사장(이하 한) : 예 그렇습니다. 두 대회 모두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 축하해주시고, 또 해외 순방 때마다 그곳 동포들과 간담회도 자주 개최하시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임기 3년 중 1년을 보내셨는데, 남은 기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 :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개헌이 이뤄질 경우에 새 헌법에 '재외동포'가 어떠한 형태로든 언급되게 하는 것, 초·중·고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가칭 대한민국 재외동포기념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Q.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개헌이 이뤄질 경우 새 헌법에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ны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тхэквондисты рассказали мэру о победах

Шесть призовых мест и медали различ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в составе сборной области завоевали юны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на чемпионате и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середине ноября в подмосковном Одинцове и собрали более 1200 участников из 45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побед ребята поделились с мэ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

ем Надсадным.

Главные герои встречи — Артем Полютов, Даниил Волохов, Александр Дю и самый юный член команды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волод Ковалев. Ему всего восемь лет. В тхэквондо он пришел два года назад. Говорит, это спорт для сильных и выносливых, таких, как он:

— Мне нравятся боевые искусства, и я доволен собой. На чемпионате и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я

завоевал второе место. Конечно, хочу связать со спортом всю свою жизнь — мне нравится побеждать.

Еще один участник сборной — Даниил Волохов — всего на год старше Всеволода. В Подмосковье юный спортсмен завоевал сразу два первых места: в программах "Тул" и "Силовое разбиение". Говорит, перед выступлением очень переживал, но вовремя со-



брался и достиг желаемой цели.

А Александр Дю привез две бронзы за программы "Спарринг" и "Спецтехника". Медаль за третье место получил также еще один участник сборной Артем Полютов.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здравил ребят с большими победами на столь престиж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А также их родителей и тренеров с тем, что благодаря их усилия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ьше чемпионов.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 6)

На корейской волне

Мария Осетрова

Корейские поп-музыка и сериалы покорили Азию и многие страны Запада. Их популярность растет и в России.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перед членами Генассамбле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выступила с речью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оп-группа BTS. Привыкшие поражать публику экстравагантной внешностью и смелыми танцами, в ООН молодые люди появились в строгих костюмах, говорили о серьезном — призывали молодежь мира не бояться быть собой и отстаивать свои идеалы. Для многих их появление на столь высоком собрании стало сюрпризом, а для некоторых — даже открытием, ведь раньше этим людям не приходилось слышать 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оп-идолах, тем более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они могут влиять на молодежные настроения. А тем временем поклонников халлю (или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сегодня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уже не только в Азии, но и в США, Европе,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е и даже на Арабском Востоке. Есть они и в России. Чем же берут иностранную публику корейские звезды, и как корейской популярной культуре удалось стать новым словом в мировом шоу-бизнесе, которое теперь сложно игнорировать?

Что такое халлю?

Слово «халлю», которое сегодня почти священно для тысяч подростков и молодых людей по всему миру, изобрели китайские СМИ, когда в конце 1990-х корейские поп-певцы стали получать известность в КНР. Термин «халлю» означает феноменальн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ы, мощной волной распространившейся с конца девяностых по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 в новом тысячелетии пошедшей дальше по планете.

Позже уже корейцы добавили к халлю более специальные термины: К рор (корейская поп-музыка — по аналогии с японским J рор), а также производные от него К drama (корейские телесериалы), К food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К beauty (корейская бьюти-индустрия) и т. п. Однако собирательной для всех этих явлений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в которую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уже

включают помимо упомянутых явлений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ьютерные игры, и городскую моду, и современную литературу, и детскую мультипликацию, и иногда даже корейский образ жизни в самом широком смысле этого слова.

В чем же секрет популярности халлю? Думаю, главное в любом продукте К culture — ставка на сильные эмоции. Будь то клип очередных корейских поп-див или сериал из жизни офисных служащих, зрителей привлекает красивая, порой даже нарочито глянцева картинка, где каждая мелочь тщательно продумана и призвана будить чувство умиления. Песни пишутся с таким расчетом, чтобы от них либо ноги сами пускались в пляс, либо невольно наворачивались слезы. Героиня фильма будет очаровательна и скромна, как Золушка, а за героя захочется сразу выйти замуж и родить ему троих детей. Даже косметические товары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ак признают и иностранные эксперты, часто берут не столько качеством и ценой, сколько симпатичной упаковкой. Девушкам просто хочется иметь их у себя в сумочке, они радуют глаз яркостью и иногда какой-то детско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стью. И хотя потребитель понимает, что вся эта сиропная сладость лишь иллюзия и в реальной Корее всё не так радужно, многие предпочитают корейскую сказку. Это же качество радикально отличает продукцию халлю от западны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американских, аналогов, где акцент делается на агрессивность, сексапильность, брутальность, «взрослость».

Другая сильная сторона продукции халлю — слаженность отработки, внимание к деталям, доведение каждого элемента до совершенства. Да, возможно, контент не поразит вас оригинальностью, возможно, многие поп-группы трудно отличить друг от друга, но внешность артистов будет безупречна, танцы — синхронны до автоматизма, костюмы и режиссура — идеально подобраны. «Мы сделаем вам красиво», — будто бы говорят идеологи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даже видные зарубежные продюсеры отмечаю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оизводства у 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г по цеху.

Триумф своб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ли успешный госпроект?

Бытует мнение, что корейские звезды достигли выдающихс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успехов благодаря мощной поддержке государства. Это правда лишь отчасти. В 1990-х никто не мог даже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совсем скоро корейская попса сведет с ума сначала половину подростков Азии, а затем и их сверстник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Хотя не стоит забывать, что как раз в 1990 году корейским минкультом был

разработан 10 летни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одним из пунктов которого впервые была названа глобал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Тогда, правда, имелась в виду культура классическая. Корейцев задевало, что их страна ассоциировалась у иностранце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Корейской войной и воинственным северным соседом, а во вторую — с чисто материаль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технопрома: автомобилями, компьютерами 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ой. Корейцам хотелось, чтобы мир узнал и об их искусстве и богатом духовном наследии. Но даже минкульт не ожидал, что это желание осуществят напомаженные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исполняющие сомнительны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ценностей песни и танцы.

Был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ичины. В 1997-м разразился азиатский финансовый кризис, который больно ударил и по музыкальной индуст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ынок был вынужден открытьс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игроков. Параллельно в экономике все большую долю стал занимать цифровой сегмент.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логичным решением было попробовать развивать экспорт медиаконтента и сферы сопутствующих услу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держало 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и не прогадало. То есть,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зародилась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но в определенный мо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о, почувствовав потенциал, обеспечило ее продвижению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Ведь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стало понятно, что речь идет не только об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ыгодах, но и о качественном улучш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миджа страны в целом.

Еще в девяностых экспорт культурной продукции был столь ма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аже не придавало значения его показателям. Но к 2002-му показатели уже составили \$500 млн., к 2010-му — \$4,42 млрд., а к 2017 году экспорт продукции халлю составил около \$8 млрд.

Как пример.

Корейский исполнитель Psy прославился по всему миру в 2012 году, когда выпустил клип на песню Gangnam style. Ролик моментально разлетелся по сети.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он набрал более 3 млрд просмотров.

Симптоматично, что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корейцы использовали те же методы, что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ранее для покор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вершин, — задействовали корпорации (SM Entertainment, JYP Entertainment и др.), превратившие процесс «выращивания» звезд практически в конвейер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пециальные менеджеры выискивают юные таланты по школам и секциям, забирают к себе на «фабрики», где уже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занимаются 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ой. На «фабриках» практикуются железная дисциплина, сверхинтенсивные репетиции, привычное в Корее строгое подчинение

младших старшему, безжалостная конкуренция. С теми, кто выходит победителем из этой гонки, заключаются жесткие контракты, порой делающие из юных звезд заложников собственной славы. Случается, карьеры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заканчиваются слишком рано и печально (например, в декабре 2017 го покончил с собой 27 летний участник мегапопулярной группы SHINee Ким Чонхён, возможной причиной трагедии называют усугубившуюся депрессию артист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орейцы привыкли добиваться целей тяжелым трудом и отказом от личного. Такой подход прошит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культурном коде, хотя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сегодня и пытается бороться с этими суровы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нормами. И все же результаты впечатляют: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телехитов стал мелодраматический сериал «Зимняя соната» (2002), сначала покоривший Японию (демонстрировался по каналу NHK и был повторен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просьбам телезрительниц), а затем проданный еще в несколько стран Азии. Также «выстрелили» сериалы «Жемчужина дворца» (2003), рассказывающий о жизни придворной поварихи (продан более чем в 60 стран), «Мальчики краше цветов» (2009) о школьных буднях корейской золотой молодежи, военно-драматический «Потомки солнца» (2016). Из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рывов стоит отметить певца Rain, жен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Girls Generation (также известный как SNSD), 2NE1, Т ara, мальчиковые TVXQ, Super Junior, Big Bang, EXO и уже упомянутую в начале BTS, пошедшую дальше других, — недавно им удалось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К-попа занять первые строчки в американских чартах. Они же были №1 по скачиванию в iTunes более чем в 65 странах, имеют 12 миллионов подписчиков на своем YouTube-канале.

Любопытно, что рядовые корейцы неоднозначно оцениваю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успехи халлю.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есть понятное чув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гордости и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что теперь в мировой попсе задают тон не только западные певцы.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многие (особенно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не одобряют как провокационный внешний вид, так и само творчество новоявл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лебрити. Многие отмечают, что часто артисты похожи друг на друга, как манекены, тексты песен примитивны, в них неоправданно много англицизмов, а имена групп больше похожи на формулы, чем на нормальные человеческие названия. А главное, многие признают вторичность подоб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Помимо К-попа в Корее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и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олее независимые 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больше на творческие, нежели на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и коммерческие цели.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 7)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и КНДР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устья реки Ханган на 77%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6 ноября РК и КНДР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устья реки Ханган на 77%.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океанографическом институт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стороны исследовали 510 км вдоль русла реки.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совместного изучения устьев рек Ханган и Имчжинган началась 5 ноября. Её цель состоит в подготовке условий дальнейшего совместного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этой водной территории.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нашла 16 рифов, ранее не обозначенных на карте. К 11 декабря планируется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проверку. В институт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члены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Юга и Севера не испытывают каких-либо проблем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Поэтому проверка ведётся без заминок.

В октябре количество авиапассажиров в РК выросло на 6,8%

В октябре количество авиапассажиров в РК выросло на 6,8%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10 млн 6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отметка за октябрь. Да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редостав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Рос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линиях составил 12%. Перевезены 7 млн 340 тыс. пассажиров. Причину такого рос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ъясняют тем, что низкобюджетные авиакомпании увеличили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линиях. Кроме того, своё влияние оказало увеличение зарубежных поездок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выходных в октябре, а также рост потока туристов из Китая. Между тем, показатель на внутренних рейсах сократился на 5% до 2 млн 72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связано с сокращением рейсов на внутренн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а также снижением поток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Объём грузовых перевозок вырос на 8,2%, составив 390 тыс. тонн.

Список объектов ежег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вырос на 7 млн человек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с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ройти 7,2 млн молод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20-40 лет, которые входят в «слепую зону» системы мониторинга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населения.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вступит в действие с 1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огласно приказу, в список объектов регуляр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будут включены также имеющие страховку гражда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качестве иждивенцев.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данные меры потребуют выдел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в размере от 30 до 50 млн долларов.

Треть южнокорейцев больше всего боятся потерять работу

Треть южнокорейцев больше всего переживает за рабочее место.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20 но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Вышеуказанные опасения высказали 36% респондентов. 17% указали на здоровье, а 15% на жизнь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На остроту проблемы рабочих мест указали и 69% из ста опрошенных экспертов. 51% респондентов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готовится к старости. При этом, в качестве средства подготовки 60% назвали пенсионные взносы, 20%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откладывание средств, 8%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Степень удовлетворённости жизнью в стране участники опроса оценили в 6,6 балла из 10 возможных.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в 6,8 бала отмечается среди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29 лет, а самый низкий среди людей от 60 до 69 лет – 6,19 бал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будет бороться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завышением рейтинга песе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ланирует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роводить постоянный мониторинг отечествен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сайтов в связи с проблемо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завышения различ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влияющих на рейтинг песен в известных чартах. Ожидается, что брокеры, работающ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толкнутся с серьёзным наказанием. 21 но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представило проект своего бюджет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члену специального бюджетного комитета, депутату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им Хён Гвону. 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ыделение 530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проект по поддержанию справедливой системы музыкального рынка. Министерство впервые подготовило проект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й цели. Ожидается, что 132 тыс. долларов пойдут на анализ больших данных, 176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разработку мер по борьбе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завышением рейтинга песен, путём массовой закупки дисков, стриминга и другими методами. 220 тыс. долларов будут потрачены на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ы постоян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RKI)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соединили дорогу, разделенную в течение 65 лет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продолжают двигаться навстречу друг другу как в прямом, так и переносном смысле в целях улучш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Сегодня военные двух стран соединили грунтовую дорогу, которая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й в течение 65 л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Сеул и Пхеньян намерены продолж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 части соединения 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Работы по соединению грунтовой дороги прошли 22 ноября в районе ДМЗ, недалеко от местечка Чхорвон, что в 90 км к северо-востоку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ложила 1,7 км пу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 1,3 км", - заяв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этом появилась в связи с совместными работами по поиску останков тех, кто погиб в этом регионе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г. В этих местах более 60 лет назад шли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и. Сейчас Чхорвон - это небольшой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и уезд в Южной Корее, а до раз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этих местах был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ой город. Однако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и практически сравняли его с

землей, уничтожив город, который имел все шансы стать крупным мегаполисом. В ходе недавно начатых работ по разминированию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нки погибших солдат, что и заставило Юг и Север начать совместные поиски, а также соединить дороги.

Помимо чисто практического удобства состоявшееся 22 ноября соединение грунтовой дороги в уезде Чхорвон имеет большое и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Может и не так быстро, но Юг и Север делают шаги навстречу друг друга. Конкретно эта дорога была разделена 65 лет назад, а сегодня она вновь стала единой трассой. Кадров офицеров армий Юга и Севера, а также стоящих друг с другом солдат двух Корей облетели весь мир.

"Это имеет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так как открытие пути, соединяющего Север и Юг в районе, где происходили наиболее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озволит эффективно продвигать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иску останков для сглаживания шрамов былой войны", - подчеркнули в Миноб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Одновременно две части Кореи продолжили работы по соединению

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планируя провести церемонию их соединения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Сеул намерен обратиться к Командованию силами ООН, контролирующими южнокорейскую сторону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ДМЗ), с просьбой разрешить движение состава из РК в КНДР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стоя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Учитывая, что командующий войсками ООН в Корее и командующий Контингентом США в Корее - одно и то же лицо, что южане просят согласия у США. Ранее американский генерал под весьма формальным предлогом запретил проход аналогичного состава, а потом США недвусмысленно дали понять Сеулу, что они недовольны той прытью, которую демонстрирует Юг по ча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Севером. В итоге южане пошли на создание совместной с США комиссии, которая по сути буде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для Вашингтона все действия Сеул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озможно, что это успокоит США и они согласятся разрешить проход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остава через ДМЗ в КНД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открыть круизную линию в Россию и КНДР

Вла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ведут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открытию круизной линии из города Сокчхо с заходо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и Японию.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программе и портов КНДР.

Начал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маршрут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2019 год. Об этом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за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Чхве Мун Сун.

По словам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едение Олимпиады в Пхенчхане привело к улучшению ситуаци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что открыло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бизнеса.

"Один из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й мы сейчас готовим - это открытие круизной линии и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окчхо с

заходом в порт Славянка у Владивостока, а также в Японию. Когда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и откроетс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то планируем включить в программу посещения и порт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сообщил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Чхве Мун Сун.

Он добавил, что работы по открытию нового маршрута ведутся весьма активно.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в порту Славянка требуется модернизация некоторых объектов, но это выполнимо. Думаю,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ы уже сможем запустить эту круизную линию", - добавил он, выразив пожелание, что новым маршрутом вос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Чхунчхон)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

사할린주

태권도 · 씨름 대회

일시: 2018년 12월 9일
(일요일), 10:00

장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주최: 사할린한국교육원

주관: 오스트로브 무술센터

후원: 사할린주한인협회,

<메가팔라스>호텔

«Фестиваль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тхэквондо·ссирым)»

В честь 25-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9 декабря 2018г., 10:0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Организаторы: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Цент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гостиница «Мегалас»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чти 700 жительни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ладают медалью «Материнская слава»

Региональную награду получают мамы пятерых и более детей. Обладательницам почетных знаков и просто женщинам, достойно воспитавшим своих сыновей и дочерей, накануне Дня матери подарили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атре кукол.

Светлана Козлова из Анивы воспитывает троих приемных ребят. Дочери – 9 лет, старшему сыну скоро исполнится 8 лет, а младшему – 2,5 года. Как признается многодетная мама, на жизненном пути их семьи было немало препятствий.

– Не сразу нашли понимание с мужем, но сейчас он тоже уверен: без детей жизнь не в радость. Когда мы взяли дочку, она совсем не разговаривала, приходилось заниматься с логопедами. Зато теперь Аня болтает без умолку. Вскоре у нас появился второй ребенок, потом третий. С каждым последующим было легче – у нас уже был родительский опыт. Ребята очень дружные, стоят друг за друга горой, хотя они знают, что по крови неродные, – поделилась Светлана Козлова.

Охинка Тамара Шмалюк растит восьмерых детей, двое ребят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ыновья и дочери хорошо учатся и при этом успевают заниматься лыжными гонками, вокалом, танцами, рисованием.

А Оксана Клыменко из села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дарит любовь четырнадцати сыновьям и трем дочкам. Девять детей уже начали ж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жизнью, но мама остается для них самым родным человеком. Семья поддерживает развитие казаче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Девочки занимаются творчеством, а мальчики всерьез увлекаются спортом, автомобилями и сваркой.

Праздничные подарки приемным мамам вруч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 Быть матерью – значит, каждый день совершать незаметный, буднично подвиж. Современная мама – не только хранительница семейного очага, но и профессионал в своем деле. В последнее воскресенье ноября отмечается один из самых теплых, добрых и светлых праздников. Это повод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сказать нашим мамам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подарили нам жизнь, за бессонные ночи, за поддержку и доверие, – обратился к виновницам торже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 А чтоб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тановилось больше мам,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асширяется перечень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пример, с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сахалинкам и курильчанкам, которые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25 лет родили первенцев, выплачивают областно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в размере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где воспитывается четверо и более детей, продолжают получать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социальную выплату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и погашение ипотеки –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знак особого уважения многодетным мамам вручается меда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теринская слава». Награды уже получили 689 жительниц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семьи, 15 мая,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награждаются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Родительская слава».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пять медалей в финал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Абилимпикс»

Из Москвы островная делегация вернулась с одной золотой, двумя серебряными и двумя бронзовыми наградами. Всего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участвовали более 1,5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студент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83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финале IV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островн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ляла сборная из 12 побе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в Москве показал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иховоацки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завоев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компетенции «Издательское дело».

– Это огромная победа для меня, – поделился победитель чемпионата. – На конкурсе я сделал несколько полиграфических изделий: книгу для записей, пять брошюр и перекидных блокнотов на металлической пружинке с обложкой. Старался выполнить свою работу быстро, качественно и аккуратно. Соблюдал все требования и технику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ему этому меня научили в моем техникуме. У нас замечательные педагоги и мастера. Это наша общая победа.

По итогам финального этапа «Абилимпикса», серебряные медали завоевали Виктория Соколова из Тымовского в компетенции «Бисероплетение» и Идя Кулакова из Долинска в компетенции «Вязание крючком». Бронзовые награды заслужи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Юлия Ткаченко (компетенция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анимация») и Илья Тен (компетенция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фин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третий раз. У ребят уже были успех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За 2016 и 2017 год в копилке островной сборной три призовых места,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Елена Бабина. – В этом году ребят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 финале все сво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и таланты. Они очень старались, поддерживали друг друг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этого чемпионата –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оверить в себя, в свои силы и в свое будуще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билимпиксе» могут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специалис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65 лет. В этом году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этапе жюри оценивало конкурсантов в 73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петенциях: 57 основных и 16 презентационных. Экспертами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и более 500 экспертов.

Сахалинцы состязались в финале чемпионата в 11 компетенциях: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Илья Тен в категории «Школьники» и Евгений Демкин в категории «Студенты»), «Поварское дело» (Александр Беланов), «Издательское дело» (Виталий Гориховоацкий), «Портной» (Людмила Гулакова),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правления и архивоведение» (Анастасия Булыгина), «Малярное дело» (Ангелина Казакова),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анимация» (Юлия Ткаченко), «Робототехника» (Владимир Шубенков), «Бисероплетение» (Виктория Соколова), «Вязание крючком» (Идя Кулакова) и «Вязание спицами» (Николай Гончаренко).

Помимо конкурсных испытаний, островная команд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е чемпионат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прошли круглые столы и конференции по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На различных площадках «Абилимпикса» состоялись дискуссии, посвящ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доступ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спользованию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и их обучении, а также вопроса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нвалидов и их поддержки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ах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грантов и субсидий

Поддержка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проектам, направленным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ельск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защите животных.

Конкурс на поддержку инициатив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направлен на вовлечение некоммерческого сектора в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 по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ельск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создание и обустройство зон отдыха, спортивных и детских игровых площадок, экологическое просвещение, поддержку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народных промыслов и ремесел и др.

Конкурс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убсидии на финансовое обеспечение затрат, связанных с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воспитанием,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ддержку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ими програм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а на достижение целей, связанных с уста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организации.

Субсид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гут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реализующие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ниж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безнадзорных четвероногих и на пропаганду гуман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животным.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ся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 работающи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поддержке будут отказаны организациям,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ых проводятся процедуры ликвидации, реорганизации, банкротства; имеющим просроченную задолженность по налогам, сборам и иным обязательным платежам, а также тем, кто в срок не предоставил отчетность по ранее полученным грантам.

Положение о конкурсных отборах, формы заявочных документов размеще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зделе «Общество и политик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оформлению документов и заявочных документов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развитию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2, офис 327. Телефон: 670-297 Ульянова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e.ulyanova@sakhalin.gov.r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ны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тхэквондисты рассказали мэру о победах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4)

— Все вы большие молодцы. Я благодарен вам за то, что прославляете наш город далеко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егодня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порт,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объекты, и все больше мальчишек и девчонок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выбирают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Безусловно, мы будем и дальше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пуляризации и поддержке спорта в нашем городе, — отметил мэр.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тхэквондо МФТ эти вопросы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 Сейчас спортсмены занимаются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ых арендуемых помещениях на улице Украинской. Держатся на плаву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средствам родителей.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ручил департаменту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порту и туризму изучить и проработать в правовом поле вопрос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уницип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портсменам. К примеру, это могут быть гранты или субсидии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оздоровительно-спорти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родители ребят попросили администрацию города помочь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спортивного отдыха детей в каникулярное время.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порту и туризму Елена Завязкина, данный вопрос уже изучен: отдыхать и тренироваться ребята могут на баз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ДЮСШ по плаванию.

Поддержка тренерского состава — еще один момент, на котором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сделали особый акцент. Нынешних победителей первенства и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воспитал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трех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тхэквондо и обладатель шестого дана Ан Сухаги (Михаил), а также его коллега, молодой и очень перспективный тренер-общественник Сергей Че. Ему всего 20. В тхэквондо он пришел шестилетним мальчишкой. С тех пор его жизнь тесно связана со спортом. Сергей имеет второй спортивный разряд по тхэквондо, является призером чемпионата и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 2013, а также победи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г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2013 года. С 2014-го ведет тренировоч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 него в группе более 25 начинающих и 5 опыт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Его ученики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новились победителями област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Так, в феврале 2018 года его воспитанница Владислава Бутанова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Кубке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Общественную трене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ергей совмещает с получение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олодого и талантливого тренера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ивать, убежден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Мэр дал поручение внести в протокол встречи проработку вопрос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Сергея Че в одно из спорти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города.

Завершился диалог со спортсменами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ноте: мэр вручил победителям и их тренерам именные грамоты и подарки о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г. Хабаровск)
Факульт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т набор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 Сроки обучения: с 02.01. 2019. по 05.05. 2019.
- Форма обучения: очно-заочна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Кол-во часов: 252 час.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5мес./3 сессии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дается диплом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присвоении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 высшему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реднему. Диплом даёт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Требования к слушателя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по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 портфолио
- Условие - прохождение аттестации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и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4 ноября 2018, - с 10:00 до 14:00
1 и 8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 с 10:00 до 14:00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Сахалинская, 219, 2-й этаж,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ВИФЛЕЕМ» (район Владимировки, остановка «Спутник»)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ам:
+ 7 962 154 8865 (короткий 488-865) – Наталья Геннадьевна
+ 7 924 481 4056 – Юрий Андреевич

[인터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헌법에 '재외동포' 명시,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대한민국 재외동포기념관 건립 등 세 가지 중점 추진

(3면의 계속)

한 : 해방 이후 지금까지 9번의 개헌이 이뤄지는 동안 한번도 헌법에 '재외동포'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2조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닌다'라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743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 가운데 재외국민 즉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서 살고 계신 분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나머지 3분의 2, 약 500만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헌법이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언급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 재외동포에게 헌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총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보다 좀 더 낮은 단계로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꾸준히 늘려야' 하는 정도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재외동포'라는 표현을 쓰기 위한 개헌만을 추진할 리는 없지만(웃음) 개헌 논의 추이를 살펴보고 개헌이 이뤄질 경우 말씀드린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다음으로는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들어가

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 예. 지금 초·중·고를 막론하고 한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743만 명의 동포가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는데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재외동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저희와 협력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동포들의 역량을 더욱 살리고 평화통일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가칭 대한민국 재외동포기념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 해방 후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들의 희생과 기여를 기억하고 미래에 우리 내국인과 재외동포들의 단합된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상징적인 곳, 그러니까 기념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칭 대한민국 재외동포기념관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들의 '허브(Hub)'같은 곳을 뜻합니다. 이곳에서 관련 학술 연구도 진행되고 교육도 진행돼 계속해서 재외동포 관련

이슈들을 만들어 내는 기능까지 하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재단의 제주도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동포들과의 접촉과 교류가 줄어들었는데, 동포들과의 교류 공간 기능도 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 첫 삽을 뜨기까지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연히 시간도 적지 않게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재외동포기념관 건립 문제를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개헌 시 '재외동포' 문구 삽입문제, 교과서에 재외동포 내용이 들어가게 하는 것 모두를 급하게 꼭 제 임기 중으로 실현시키겠다는 마음보다는 2년 동안 착실히 여건을 조성하고 준비해서 제 임기 후라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Q. 재단이 제주도로 이전한 지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 아시는 대로 저희 재단이 지난 여름 제주도 서귀포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소수 인력이 남아 있고요. 그러다보니 제주도 새 공간에 적응하는 일과 제주와 서울로 조직이 분산된 새로운 조건하에서 최대한 업무 공백 없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

가 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일입니다.

21년 전 처음 재외동포재단이 문을 열었을 때 소속 직원이 서른네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예순일곱 명입니다. 두 배가 된 것이지요. 저는 글로벌 시대 더 중요시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외교부 산하 재단이라는 점에서 규모가 현상태로 커진 것이 빠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을 해결할 인재들이 끊임없이 조직에 충원돼야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고 계속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에 인력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Q. 끝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한 : 내년 2019년은 만인의 평등, 비폭력을 선언하며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재외동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는 데요. 물론 통일의 주체는 한민족이지만 먼저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재외동포사회가 힘모아 통일 한국을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Q.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 저도 감사드리고요. 재외동포재단이 비전 그대로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2018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사업> 수료식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경희대학교(동아시아 지역)과 국민대학교(중앙아시아 지역)가 주관한 '2018년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사업(동아시아 지역)'의 수료식이 11월 16일 국립국어원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동아시아 지역(일본 도쿄/오사카, 러시아 사할린)에 파견된 총 28명의 예비교원이 국립국어원 소장 원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았다. 실습 기간 동안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우수 예비 교원 문미래(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졸업)와 류지현(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4학년 졸업)이 국립국어원 원장상을 받았다.

문미래 학생은 국외 실습에서 돌아온 후 졸업과 동시에 국내 대학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강사직에 지원하여 당당히 합격하기도 하였다.

“한 달간의 국외 실습 기간은 4년간 학부에서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고 평소 한국어 교원을 꿈꾸며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모의 수업을 하며 각 기관의 특성과 현지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에게 유익했습니다.(문미래)”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한국어 예비 교원들에게 주신 국립국어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선생님들,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후배들에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해서 5년 후에는 제가 이 사업의 경력교원으로서 참여하고 싶습니다.(류지현)”

예비 교원들은 그들의 전문성에 크게 만족한 국외 실습 기관으로부터 향후 교원 선발 시 꼭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 사업은 한국어 예비 교원의 국외 실습을 통해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한국어 교수법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На корейской волне

Мария Осетров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4)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и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вносит лепту и в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только роль ее меняется с отрицательной на положительную и обратн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кущ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на полуострове. Так, в 2000-х запис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идеоклипов и телесериалов контрабандно можно было достать в КНДР, и, по рассказ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бежчиков, желающих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асскультом «южан» хватало. Правда, знакомиться приходилось тайно, так как за подобный интерес можно было поплатиться.

Позже, в период правления в РК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сил (2008–2017 годы), не поддерживающих иде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подобное разлагающее влияние корейской попсы на умы и души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использовалось в открытую: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на 38 й параллели через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и наряду с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й информацией транслировались и песни популярных корейских певцов. Однако во времена потеплений К поп-группы, наоборот, превратились в средство культу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Так, в 2003-м, при президенте Но Му Хене, ратовавшем за активизацию контактов с КНДР, в Пхеньян приезжала девичья группа

Baby vox. Нынешний лидер РК Мун Чжэ Ин тоже прибегает к халлю в своей меж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е –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целый десант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включая такую тяжелую артиллерию, как женская команда Red Velvet, участвовал в большом объединенном концерте в Пхеньяне. Ким Чен Ын и остальная публика, как сообщали СМИ, принимали их весьма радушно.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в России

С приличным опозданием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докатилась и до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Первые осязательные признаки увлеч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подростков халлю отмечались уже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нулевых. Обычно К-поперами (как они сами себя называют) становятся школьник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и студенты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женского пола), многие из них изначально приходили к этому после интереса к японской поп-культуре, в частности, аниме.

Сегодня российские поклонники халлю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хоть и небольшую, но постоянно растущую и довольно энергичную молодежную субкультуру. В соцсети «ВКонтакте» легко найти множество сообществ, посвященных Корейской волне. Например, одно из достаточно старых и известных – «Корея окрыляет» – на момент написания этой статьи насчитывало более 117 тысяч подписчиков. Сообщества, объединяющие фанатов

отдель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могут иметь и по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например, у тех же BTS – более 400 тысяч). В интернете К-поперы не только обмениваются новостями и обсуждают кумиров, но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овлекаются в создание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контента по своей тематике. Многие фанаты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или чисто символической основе регулярно переводят с корейского (или английского) и выкладывают в сеть русифицированные видео новых сериалов, очередные выпуски корейских ток-шоу или интервью с любимыми артистами. Периодически активность фанатов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интернета, и некоторые даже запускают офлайн медиа-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равда, редко выдерживают проверку временем. Например, в 2013–2017 годах в России и на Украине выходил малоформатный гляцевый журнал о К-поп ONNI Magazine.

Другая часть фанатов реализует свою любовь к Корейской волне, создавая кавер-команды, которые копируют танцы корейских звезд и выступают с ними на К-поп-вечеринках. Кроме того, периодически устраиваются танцевальные флешмобы, когда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поклонниц одно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т на знаковых городских площадках номера под музыку корейских шлягеров.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ервых был К поп Rainbow flashmob на Дворцовой площад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осенью 2011-го,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оводились и более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нечно, эта активность все еще остается на уровне соцсетей и не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молодежного увлечения. Большинство россиян пока если и слышали что-то о К-попе, то вскользь и очень фрагментарно. Единствен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евец, которого более-менее знают в России не только подростки, – это PSY (Сай), в 2012 году покоривший мир хитом Каннам-стайл. Однако сам факт,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девушки выбирают в качестве кумиров азиатских звезд и поэтому стремятся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ездить в Корею и подражать корейскому стилю жизни,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векторы мировой поп-культуры постепенно меняются. Конечно, многие, переболев К-попом в юности, вырастают из него и отходят от былых увлечений. Но на их место приходят новые фанаты, и их число уверенно растет.

Корейцам льстит подобное внимание к их артистам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Они его ценят и поддерживают. Так, уже много лет подряд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К в Москве работают бесплатные курсы К-попа, куда может прийти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Корейские журналисты часто приезжают снимать репортажи и целые фильмы про русских поклонниц халлю, к чему, кстати, обычно приурочиваются вышеупомянутые флешмобы. Все это до некоторой степени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ореи и ее имиджевые позиции в России. Так что не стоит недооценивать мягкую силу К-попа. Она себя еще покажет.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등록과 문의 전화는 300-738 (추가 2, 4)라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по поеданию пельменей получит 5 кг пельмен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5 декабря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День пельменя". Традиционно в программе работа фуд-корта, полевая кухня, дегустаци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а также конкурс "Пельмешки без спешки" на самое быстрое поедание пельменей.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ельмешки без спешки",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что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граничено — всего 10 человек (от 18 лет). Поэтому желающим стоит поторопиться с регистрацией. Главный приз тому, кто быстрее всех справится с заданием, — 5 кг пельменей.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7 дека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в приемной департамент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по адресу: пр. Победы, 62а, а также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a.klimenko@yuzhno-sakh.ru.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телефону 300-743 (доб. 1, 2, 3).

К участию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глашают также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ельменей. Самые вкусные определяют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путем голосования, продегустировав продукт. Телефон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и вопросов 300-738 (доб. 2, 4),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유즈노사할린스크 예술학교들 '국제장애인의 날' 기념 공연 준비

12월 3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국제장애인의 날' 기념 공연이 개최된다.

이에 여러 예술학교들과 공동으로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의 러시아 민속예술과 및 한민족예술과의 예술단이 무대에 오른다. <레이스> 민속 현악기연주단의 연주,

<이완 다 마리아> 민속양상블은 '손님들, 앉아 계세요' 우화를 들려주고, '오, 할머니가 장작을 쪼개놓았다.'란 놀이 노래를 부르며 한민족과를 대표해 무용단과 사물놀이팀이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12월 4일(화) 12시 30분 <에트노스>는 '국제장애인의 날'을 맞아 <극복> 장애청소년재활센터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음악학과 학생들은 재활센터의 아이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피아노로 전세계 일주>라는 주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관객들에게 여러 나라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라틴 아메리카 나라 등)의 노래와 춤을 소개한다. 공연은 상호활동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에트노스> 측이 전했다.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готовили концерт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инвалидов

3 декабря в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инвалидов.

Совместно с другими школами искусств на сцене выступят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й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Прозвучат композиции в исполнении ансамбля гуслей "Кружева".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Иван-да-Марья" исполнит небылицу "Посидите, гости" и игровую песню "Ой, да нарубила баба дров". От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номера представят ансамбли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и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Кроме того, 4 декабря в 12:30 "Этнос" даст концерт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реодоление",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инвалидов.

Отделение музыкально-теоретических дисциплин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и гостей центра готовит тематический концерт "Вокруг света на рояле". Ученик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представят на суд зрителей танцевальную и песенную музыку разных стран: Франции, Германии, Японии, России, Украины, стран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и. Концерт пройдет в интерактивной форме, сообщает "Этнос".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알립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은 2018년 12월 7일(금) 17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зднует 25-летие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праздничное торжество,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7 декабря в 17-00 в актовом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р. Мира 83А).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72-94.


(본사 편집부)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